

# 민청학련 사건과 인권변호사들

김찬국

\*김찬국님은 1974년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학장으로 재직중 민청학련 사건의 배후 조종자로 구속되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975년 석방 후에는 복직, 해직을 반복하다가 연세대학교 부총장으로 정년퇴임하고, 원주 상지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이 글은 김찬국님이 현재 외명중이어서 한승헌 변호사의 회갑 기념문집에 실린 것을 재정리한 것이다.

나는 1974년 2월 말 경 연대생인 김영준·김학민이 찾아왔을 때 유신헌법을 비난하고, 그후 반정부적 학생 데모를 충동하여 내란을 선동하고, 나아가 위 두 학생이 민청학련 구성원이었다는 사실을 수사·정보기관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불고지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어 비상통군법회의 1심에서 징역 10년을, 2심에서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학원·종교·시민세력의 반유신투쟁에 밀린 박정희 정권은 다음해 2월 15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긴급조치 위반자들을 모두 석방했으며, 이 때에 나도 300여 일의 감옥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 유신폐지 후에 등장한 민주변호사

1994년은 민청학련사건이 있는 지 20주년이 되는 해였다. 민청학련운동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회가 결성되어 민청학련운동 자료집으로 『비상보통군법회의 자료집』이 출판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변호사들의 변론이 빠져 있다. 또 피고인들의 최후진술도 빠져 있다. 변론과 최후진술이 보존되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있다면 그 기록과 함께 검사들의 기소 주장과 군장성 재판관들의 판결문 등이 앞으로 모두 공개되어야 하겠다.

한승헌 변호사님은 고등군법회의 재판 때 나를 대변하고 옹호한 변호사였다.

1972년 10월 17일, 유신헌법의 선포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종신 대통령의 길이 열리자 유신독재시대가 시작되었다. 언론들은 완전히 정부관할 하에 통제되었다. 박정권이 만든 정보정치가 온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으면서 유신반대의 움직임을 차단해 나갔다.

1973년 12월 24일,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이 장준하·김동길·백기완 선생의 주도로 기자회견에서 발표되었다. 온 세상을 놀라게 한 반독재운동의 시작이었다. 한 변호사는 이렇게 세상이 긴장되고 침묵이 강요되어 있을 때 이른바 반독재사범인 정치범들의 변호를 맡아 동분서주하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1974년 민청학련 관련 학생들을 변호하다가 법정 구속을 당했던 강신옥 변호사, 반체제인사들과 학생들을 변호하다가 미움을 받던 중 필화사건으로 반공법에 의해 구속·기소, 실형을 선고받고 변호사 자격도 박탈당했던 한승헌 변호사, 이런 분들의 수난이 민주변호사(민변)들의 모임의 탄생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다.

홍성우 변호사를 비롯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민주화운동 사건에 희생적으로 봉사하면서 억울함을 당한 피고인들을 대변하고 그들의 석방을 위해서 봉사를 해왔다.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다.

## K검사와 피고인들

한 변호사의 변론을 듣기는 1974년 8월 내가 김동길 교수와

함께 보통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을 때였다. 김동길 피고인에 대한 변호를 할 때 그분의 논조가 내 마음에 들었고 공감이 되었다. 김동길 교수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유신헌법의 비민주성을 암시하면서 민주회복의 뜻을 가진 피고인을 대변하는 것을 들었다. 그분의 변론이 피고인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만족하여 속으로 기뻐했다.

그런데 나를 변호한 이 아무개 변호사는 나의 참된 생각과 뜻을 대변하지 못하여 속으로 ‘저런 뜻이 아니었는데’ 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했다.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개헌청원운동에 서명한 나의 뜻은 민주회복을 위해서였는데, 이 변호사는 말하기를 “김찬국 피고인은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 공부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서구식 민주주의는 잘 알지만 한국적 민주주의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관대하게 판결해 달라”는 요지로 변호하였다.

구치소에 있을 때 가족면회를 한번도 못한 처지에서 누구를 변호사로 선임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구속되어 기소된 뒤에 구치소에서 변호사 접견이라고 하여 이 변호사를 처음으로 만났다.

기소된 내용이 무엇인가는 알고 있었지만, 1974년 1월 8일 선포된 긴급조치 1호와 4호 위반, 내란선동죄와 불고지죄로 기소된 것을 변호사가 자세히 알려주었다. 나는 유신헌법이 비민주주의적인 독재헌법임을 변호사에게 주장하였다. 구속영장 없이 연행당하여 구속된 것도 이야기하였다.

결국 내가 한국적 민주주의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이 변호사의 변론에 나는 실망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홍보와 선전구호였던 ‘한국적 민주주의를 뿌리박자’에 맞추어 나의 인식이 부

죽하니 잘 봐달라는 것이었으니, 나름대로 한 시대를 지성인으로  
서 올곧게 살아온 나의 자존심이 무척 상하였다.

군법회의의 검사는 전직 민주당 국회의원인 K씨였다. 나는  
K검사에게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유감을 가지고 있다. 물론 그때  
강권에 의해서 예정된 군사재판을 거치는 절차였겠지만, 나에게  
다시 확인하려고 구치소에 왔을 때 검사가 억지로 조서를 만드는  
것을 보고 실망이 컸었다.

서기를 대동하고 구치소에 온 검사가 내가 서빙고의 보안사  
에서 취조받은 내용을 가지고 결국은 긴급조치 위반으로 몰고 갔  
으며, 유신헌법 반대서명을 근거로 기소한다는 내용이었다. 검사  
도 청탁을 받고 각본대로 심문을 했겠지만, 그때 나는 피의자의  
손도장을 억지로 받아가는 것을 보았다. 검사가 서기에게 말한  
내용에 나는 손도장을 찍어주면서 법정에서 바로 따지겠다고 큰  
소리를 쳤다.

K검사의 10년 구형이 있고 나서 최후진술을 했지만, 판결은  
김동길 15년, 김찬국 10년이라는 언도가 있었다.

## 고등군재와 한승헌 변호사

김동길은 “법이 법같아야 항소하지” 라면서 항소를 포기하고  
안양교도소로 이감을 갔다. 나는 가족이 딸린 처지여서 항소를  
안할 수 없었다. 미결수로 서대문구치소 독방에 머물러 있고 싶  
기도 했다. 솔직히 말해 아내와 자식들이 있으니 좀 깎아야 되겠  
다는 순진한 심정이었다.

고등군법회의의 재판을 받기 전에 구치소로 한승헌 변호사가 오셨다. 그분과의 대화에서 나는 안도감을 가졌다. 형이 감형되고 안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피고인의 뜻을 얼마나 대변하고 변론을 해주느냐 하는 관점에서 나는 한 변호사를 믿었던 것이다.

고등군재에서 박형규·지학순·강신옥 등 여러분이 출정하는 것을 보았다. 박형규 목사와 내가 호송차를 함께 타고 삼각지에 있는 군사재판소에 갔다. 피고인 한 사람에게 방청인으로 가족 한 사람만 허락이 되었다. 군사법정에 묶여가서나마 아내를 볼 수 있었다. 묶인 두 손을 흔들면서 아내에게 인사하는 것이었다. 재판정에 들어가서도 방청석에 와 있는 아내를 뒤돌아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긴급조치 1호·4호 사범 모두가 가족면회 또는 대화를 하지 못했다.

고등군법회의에는 주월사령관이었던 이세호 대장이 재판장으로 나와 있었다. 고등군재 재판과정에서 한승헌 변호사의 변론은 나에게 큰 만족을 주었다. 형량이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가 법정에서 얼마나 바르게 피고인의 진의를 판사에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었다. 한 변호사는 내가 한국의 올바른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서 유신헌법 개정에 서명한 것임을 밝히고 대변해주었다.

최후진술에서 나는 예수님의 부활사건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을 돌무덤에 묻고, 돌문을 인봉하게 하고 군인들이 지키도록 로마 총독 빌라도가 명령하고 지시했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뜯소문을 들었는지 그런 지시를 내렸던 것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할 때 빌라도가 긴급조치로 돌문을 인봉하고 군인들을 동원

하여 지키게 했지만, 돌문은 열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였다고 소리를 높이면서, 진리를 가두어두고 긴급조치로 말 못하게 강권으로 틀어막아도 진리는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다고 강조했다.

고등군재 판결 때 지학순 주교를 비롯하여 수많은 학생들에 대하여 항소기각 판결이 났다. 나는 항소이유의 일부를 인정받아 10년을 5년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받았다. 나라도 감형이 되니 기분이 좋았다. 나이 든 피고인들의 감형 판결은 드문 일이라고 듣고 있다. 아무튼 나는 한승헌 변호사의 덕으로 5년이 감형되었다고 믿어 감사하였다. 아내도 그렇게 생각했으리라 짐작했다.

실제로 긴급조치로 사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기각되자 24시간 안에 그 8명에 대한 교수형을 집행한 천인공로할 박정권의 횡포에 모두 놀라움과 실망을 달랠 수가 없었다.

민청학련사건으로 이른바 인혁당 관계자 8명이 이렇게 대법원 판결 바로 다음날에 처형당했으니(1975년 4월 9일) 그들의 가족과 자손에게 어떻게 위로하고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아주어야 하는가가 우리의 잘못된 역사 청산 또는 역사 바로잡기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나는 1975년 2월 17일 10개월만에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어 나왔다. 민청학련사건 구속자들은 거의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무기, 20년, 10년, 5년, 3년 받은 정치범들이 1975년 2월 15일과 17일에 모두 석방되었다.

나는 2월 17일 밤에 무기수 학생 이철, 홍성엽군과 함께 석방되어 나왔다. 다 함께 석방될 줄 알았으면 항소를 위한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고 떠들어 보기도 했다.

어쨌든 나는 한 변호사와 밀접한 인연을 맺어 그후에도 인권 운동 대열에서 함께 웃고 울고 격려해온 친척같은 사이가 되었다.

## 한 변호사의 수난

한승헌 변호사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에 실망과 놀라움을 금치 못한 적이 있었다. 한 변호사는 수필가이며 논리정연한 웅변가이기도 하다. 1975년 3월 22일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되었다.

변호사가 어떤 변론을 하다가 구속되었는가 싶었다. 『여성동아』 1975년 3월호에 기고한 「어떤 조사—어느 사형수의 죽음 앞에」라는 글 때문이라는 것이다. 글의 마지막 대목에서 ‘북괴 간첩 김규남의 죽음을 애도한 내용’ 때문에 구속기소되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의 수상집 『위장시대의 증언』에도 그 글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사형에 대한 평소의 비판적 입장과 국제 엠네스티의 사형폐지운동에 공감하여 사형제도에 대한 반성을 제기하고자 쓴 수필”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에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당하였다.

나는 한 변호사 집에 찾아가 그의 부인을 위로하기도 했지만, 구속이라는 사건에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감옥에 갇힌 나를 한 변호사가 위로하고 변론을 하여 주었는데, 이제는 내가 감옥에 갇힌 한 변호사를 위로하게 된 것이다. 유신시대란 이렇게 미친 시대이다.

정론으로 정직하게 사회를 비판하며 억울하게 인권을 유린





▲ 1975년 2월 17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는 김찬국 교수

당한 사람들을 위해 용기있게 피고인 편에 서서 변호하고 사법부의 잘못과 정치적 의도의 중형판결에 대해 항의해온 한 변호사가 혹시나 당국의 미움을 받은 것은 아닌가 추측해 보기도 했다. 한 변호사에게 옥고를 치르게 한 일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 변호사가 석방되던 날 나는 서대문구치소까지 가서 환영하였다. 그는 치욕의 옥고를 치르고서도 유머 감각을 살려 모든 분들을 웃기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데에 남달리 특출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 사회비평 속에 담겨 있는 언중유골의 정론과 비판을 잘하는 분이라 그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 모두 재미있어 하고 공감대를 넓힐 수 있어 좋아한다.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던 오랜 기간 동안 삼민사라는 출판

사를 만들어 좋은 책들을 출판하였다. 한 변호사는 글을 잘 쓰고 문인으로서도 인정받은 분이라 출판을 통해 올바른 사회진단과 비평의 폭을 확대하는 데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역울한 일을 당한 유가족이나 구속자 가족들을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방문과 대화의 폭을 확대해가는 숨은 봉사와 협조를 물심 양면으로 펼쳐온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참으로 고마운 분이다. 양심수를 위한 변호를 실비조차도 마다하고 도움을 준 일도 수없이 많을 것이다.

오늘의 민변 소속 변호사님들도 그런 봉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면서 이 땅의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음을 나는 안다.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다. 한 변호사는 1983년에야 복권이 되었으니, 그 동안 출판일로 세월을 보냈지만, 그분이 어떤 일을 하든 약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분인 것을 자랑으로 생각한다.

## 자유와 인권을 위한 만남

장준하 선생이 1973년 12월 23일 밤에 우리 집에 왔다. 바지 속에서 서류봉치를 끄집어내었다. 개헌청원 서명운동 취지문을 읽고 도장을 찍으라는 것이다. 도장을 찍으려 하자 “잠깐만!” 하고 자기를 보라고 했다. 목이 달아날 각오를 하라며 목에다 손바닥을 대는 것이었다. 1974년 1월 초 장준하와 백기완은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군사법정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 서명운동이 확산되었다. 1974년 1월 2일 우리 집에는 연세대 학생들이 세배차 많이 왔다. 나중에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

속된 김학민, 김영준, 송재덕 등이 나의 집에서 서명하고 가겠다고 빈 종이를 달라고 했다. 그리고 다른 연대생들, 각 서클 학생들이 줄을 이어 와서 세배를 하고는 서명하겠다고 즐겼다. 동아리 중에 한국문제연구회, 목학회, 신과대생, 기독교학생회, 그밖에 이상한 이름인 인간적정회 등의 회원도 왔다.

유신헌법 철폐를 위한 서명을 집에서 했으니 이 정보가 밖으로 나가지 않을 리가 없다. 제일 먼저 서명한 신과대생 신동욱은 나중에 목사가 되었다. 민청학련 사건 때 그는 피해 있다가 나왔다. 나의 기소문을 보면 집에서 학생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보안사에서 취조를 받을 때 이 점이 지적되었고, 서명 학생들의 이름을 적으라고 강요당했는데, 긴급조치 1호가 발동하여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우겼다.

이에 대해서는 민청학련사건으로 나와 함께 구속된 경제학과 학생 김학민(현재 도서출판 학민사 대표)이 나의 연세대 교수 정년퇴임 기념문집 『나의 삶 나의 이야기』에 그 전말을 쓴 일이 있어 소개한다.

……우리들은 이렇게 계획을 세워 많은 분들을 찾아 뵙고 세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김찬국 선생 댁의 세배는 그때나 이제나 약간은 유별나다.

김찬국 선생댁의 세배는 항시 ‘점심 코스’에 들어 있는데, 선생님과 사모님께 세배를 드리고 항상 편안한 그 댁 분위기에서 떡국을 먹는 정해진 절차와 함께 이어 ‘세배자 등록’이 시작된다. 곧 세배온 사람은 빠짐없이 노트에 주소, 성명 등을 자필로 적는

것이다.

세배은 사람의 이름을 왜 적으라 하실까? 혹 누가 세배를 왔고, 누구는 오지 않았는가를 체크해 나중에 어떤 조치(?)를 취하려는지? 그렇지 않으면 세배은 사람들의 남녀별, 지역별 통계라도 내시려는지?

그렇리야 없을 터이고, 아마 선생님께 졸업생부터 재학생까지 전공에 관계없이 하도 많은 제자들이 세배를 오므로 그들을 기억하기 위한 따뜻한 마음에서이리라.

그러나 세상사가 다 그렇듯, 가끔은 좋은 뜻으로 한 것이 끝까지 좋은 것으로 남지 않는 일이 있으니, 1974년 1월 2일의 사건이 그러하다.

그날 김찬국 선생님택은 총학생회 간부들, 신과대학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과 같이 전공은 다르나 평소 따르던 타학과 연세대생 세배객으로 꽉 찼었다.

1973년 12월, 윤보선, 함석헌, 김재준 등 각계인사 50여 명은 박정희 1인독재의 영구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유신헌법을 철폐시키기 위해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성명하고, 그 실행방법으로 이 성명에 서명한 인사들 각자가 서명운동 본부가 되어 시민 서명을 받기로 했다.

그때 연세대 교수로서는 김동길, 문상희, 김찬국 선생님께서 이 성명에 서명했었는데, 우리는 그날 김동길, 문상희 선생님 택을 거쳐 오면서도 막상 서명은 김찬국 선생님 택에서 했다.

지금 기억을 되살려 봐도 꼭 김찬국 선생님 택에서 서명하기로 한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같은데, 아마 '말은 바 임무'에 항

시 성실히 대하시는 선생님의 성품이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었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회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한 이 서명이 몇달 후에는 우리들 모두가 치도곤을 당하는 화근 덩어리가 되었으니, 그것은 그해 4월의 일이다.

1974년 4월, 우리들은 뽕뽕 묶인 채 중앙정보부와 보안사 서빙고 분실을 왔다갔다하며 작살나고 있었다.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을 조직,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였다.

김동길, 김찬국 두 교수님도 우리들과의 만남에서 ‘정치현실에 대해 약간 개탄한 죄’로 이미 구속되어 있었다. 이름하여 민청학련 배후조종 혐의였다.

플래카드와 전단을 이용하여(그때는 시위대가 돌맹이와 화염병을 사용하지 않았다) 시민들을 선동, 경찰과 군대를 쳐부수고 국가를 전복, 김일성 정권과 비슷한 정부를 세우려 했다는 것이 20대 초반 우리들에게 들썩워진 혐의였지만, 우리들은 그외에 1월 2일 김찬국 교수택에 모여 개헌운동에 서명하고 유신반대 투쟁을 본격적으로 벌이기로 결의했다는 ‘여죄’를 더 추궁받았다.

사실 그대로 세배를 간 경위와 서명을 하게 된 과정을 진술하였지만, 수사관들은 김동길, 문상희 교수 택에서는 서명하지 않고, 왜 김찬국 교수 택에서 서명하였느냐는 거였다.

가만히 눈치를 보건대, 수사관들은 이미 대학사회에서 그 ‘불온함’이 널리 드러난 김동길 교수보다는 ‘뉴 페이스’ 김찬국 교수에게서 새롭게 불온성을 적발한 것에 쾌재를 부르는 것같았다.

하여튼 우리들은 1월 2일의 김찬국 교수 대의 '세배 상황'을 지루하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세배자로 등록된 학생들의 이름을 이는대로 볼 수밖에 없었다.

그후 열추 수사가 끝나고 우리들은 감옥에 꿰어 앉아 세 끼 어김없이 들어오는 콩밥이나 축내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간간이 들려오는 소식에 그때 '세배자 등록'을 한 학생들이 속속 잡혀와 우리들과 버금가게 고통을 당하고 나갔다 하니, 이것이 앞에서 말한 좋게 시작된 일이 끝까지 좋게 되지 않은 경우인 것이다.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재판은 그 해 7월부터 군사법정에서 시작되었다. 보통군법회의가 열리기 며칠 전 교도관이 공소장이라며 철창 안으로 툭 던졌다. 공소장의 전문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피의자 김학민은 가정이 빈곤하여 항상 불만을 지녀왔던 바, 자신의 가난이 사회의 책임인양 오신망상하고 ..... 1974년 1월 2일 오전 11시 경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김찬국 가에서 세배를 빙자 김영준 ..... 등과 회합하여 유신헌법 개헌서명운동을 벌여 사회혼란을 일으킬 것을 결의하고 .....”

1974년 4월 김찬국 선생님과 우리들을 수사했던 중앙정보부원이 혹 이 글을 읽을지 몰라 사실을 확인해 준다.

1. 세배를 빙자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세배를 갔다.
2. 김영준 등과 회합한 것이 아니라 떡국을 먹었다.
3. 사회혼란을 일으킬 것을 결의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 유신 독재정권을 규탄했다.

선생님이 원주에 계시다는 것을 핑계로 최근 몇 년간은 세배도 드리지 못했다. 선생님, 멀리서 때늦게 지면으로 세배드립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서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소서.

어쨌든 이런 일로 인해서 1975년 2월 석방된 후에도 정부의 강요에 의해 이른바 해직교수가 되어 10년 동안 복직을 기다려야 했다. 1980년 3월 복직했다가 전두환 정권이 태동된 1980년 7월에 다시 해직, 1984년 9월에야 연세대로 복직이 되었다.

그리고 8년 동안 교수로 일하다가 1992년 8월 정년퇴임했다. 연세대학교 퇴임하고는 1993년 8월 31일 원주에 있는 상지대학교의 총장으로 부임했다.

